

(붙임)

사 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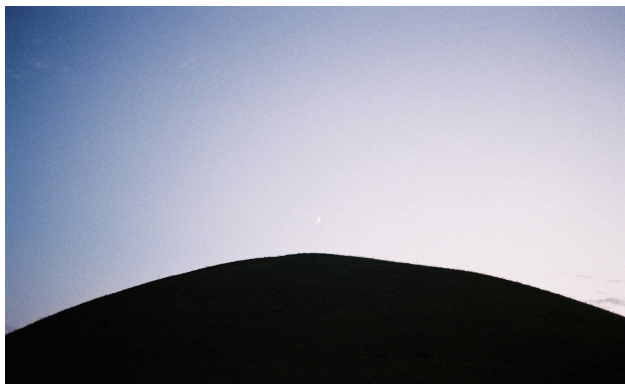
□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사진 공모전 수상작 (4점) - 작품사진 분야



(대상) 곽재훈 님
 작품명: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현세의 모든 권위를 죽어서도 이어가고 싶었던 죽은 자들의 공간.
 여행과 휴식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채워가는 산자들의 공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도시, 경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최우수상) 박혜은 님
 작품명: 과거로부터의 흔적
 날씨가 너무 좋아 아이와 함께 대릉원과 천마총 산책을 나갔다. 천마총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모습을 계속 셔터로 찍어보았다. 어쩌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흔적이랄까...



(우수상) 박슬원 님
 작품명: 밤이 되어가는 순간
 야트막한 대릉원 위로 떠오르는 손톱달, 어두운 릉 위로 달이 떠오르는 풍경, 대릉원에서 볼 수 있는 순간. 떠오른 초승달이 고요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짐



(우수상) 허칠구
 작품명: 프로포즈
 2014년 2월 14일 경주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눈이 내렸다. 천년의 숨결이 있는 왕릉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한다.

□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사진 공모전 수상작 (2점) - 옛사진 분야



(우수상) 김현숙 님

(촬영일시) 1984년 11월

신혼여행지인 경주와 부산코스로 서울에서 단체로 신혼부부끼리 대릉원,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를 둘러본 추억을 남기며 꿈같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여행사에서 달아준 사각형 뱃지가 재밌네요 ^^)

(우수상) 황병순 님

(촬영일시) 1981년 04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 가서 천마총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집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했습니다.